

색다른 일자리 박람회

3

구직자용

구직자용

구직자용



[사진=중앙포토]

해외를 뚫는다

한국기업 글로벌화에 채용 급증
내달 12일부터 미국서 박람회

L씨는 2000년 삼성그룹 차장 자리를 박차고 벤처로 옮겼으나 성공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해외 취업의 문을 두드린 그는 2004년 미 뉴저지의 한국계 중견기업과 연을 맺어 인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안정적인 직장과 자녀 교육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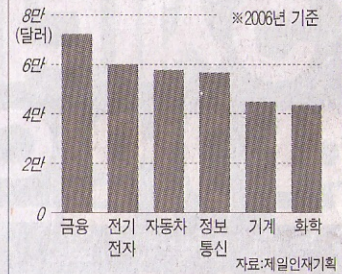
국내의 외국계 기업에서 생산 관리자로 일하다 최근 퇴직한 C부장은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업체의 중국 선전(深圳) 현지법인 생산 책임자로 발탁됐다. 중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다 생산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는 최근 선전으로 부임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기업 출신 관리자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늘고 있다. 제일인재기획의 김성민 사장은 “미국에만 한국 대기업의 현지법인과 지사를 포함해 1만여 개의 한국계 기업이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경력자라면 미국이나 중국·베트남 등지로 진출할 기회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말했다. 제일인재기획은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지에 지사를 둔 해외 취업 전문 컨설팅업체다. 그는 미 취업 시 연봉뿐 아니라 의료·치과 보험 수준, 주택 및 차량 지원 여부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현대·LG 등을 포함한 미국 진출 한국 기

업의 연봉조사 자료는 제일인재기획 홈페이지(www.cheilconsulting.com)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사의 자회사인 잡월드USA(www.JobWorldUSA.com)는 다음달 12일 미 뉴저지 매리엇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연다. 한국 업체가 한국인만을 상대로 현지에서 채용 박람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계 기업과 미국 내 외국기업 등 5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계 유학생을 상대로 동부·웅진 그룹 등의 채용을 대행했던 이 회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뿐 아니라 국내 취업자들에게도 현지 취업에 도전할 기회

미국 진출 한국기업 평균 연봉



를 준다. 이 회사 김민준 이사는 “본사와 미국지사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각 기업 채용 담당자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현지의 컨설턴트한테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